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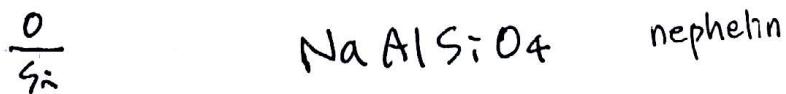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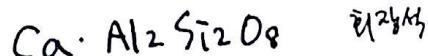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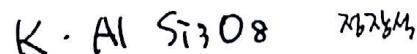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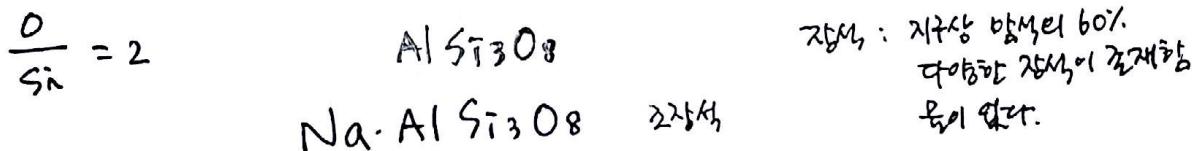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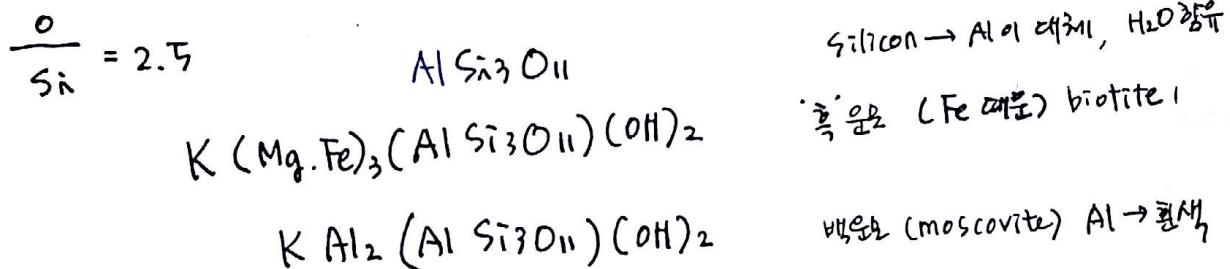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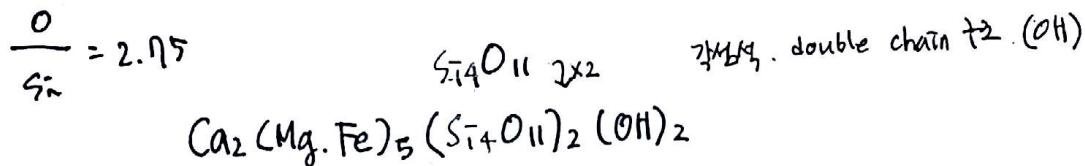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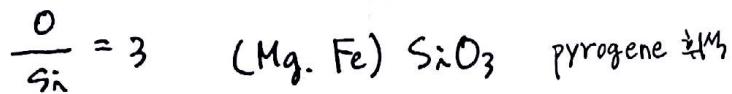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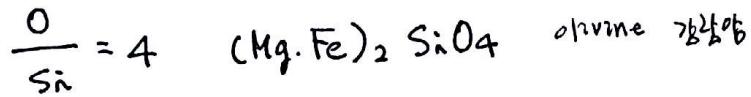
제19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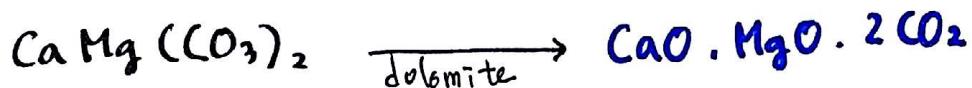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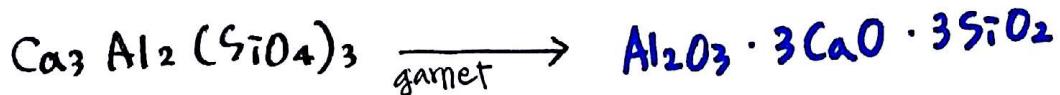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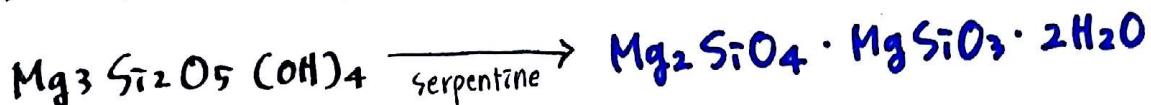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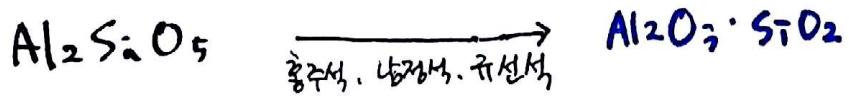
137억년 우주의 진화

## 제13강. 암석·토양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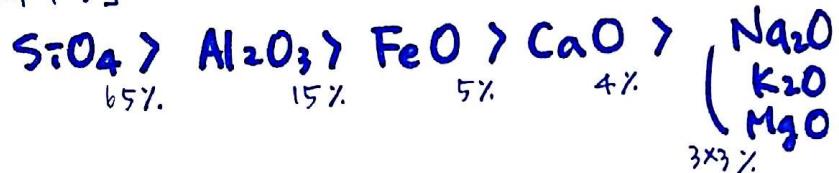
2017. 5. 14

- $\frac{O}{Si}$ 의 비율이 증가. Bowen 도로에 시작. 암석의 '구조' 찾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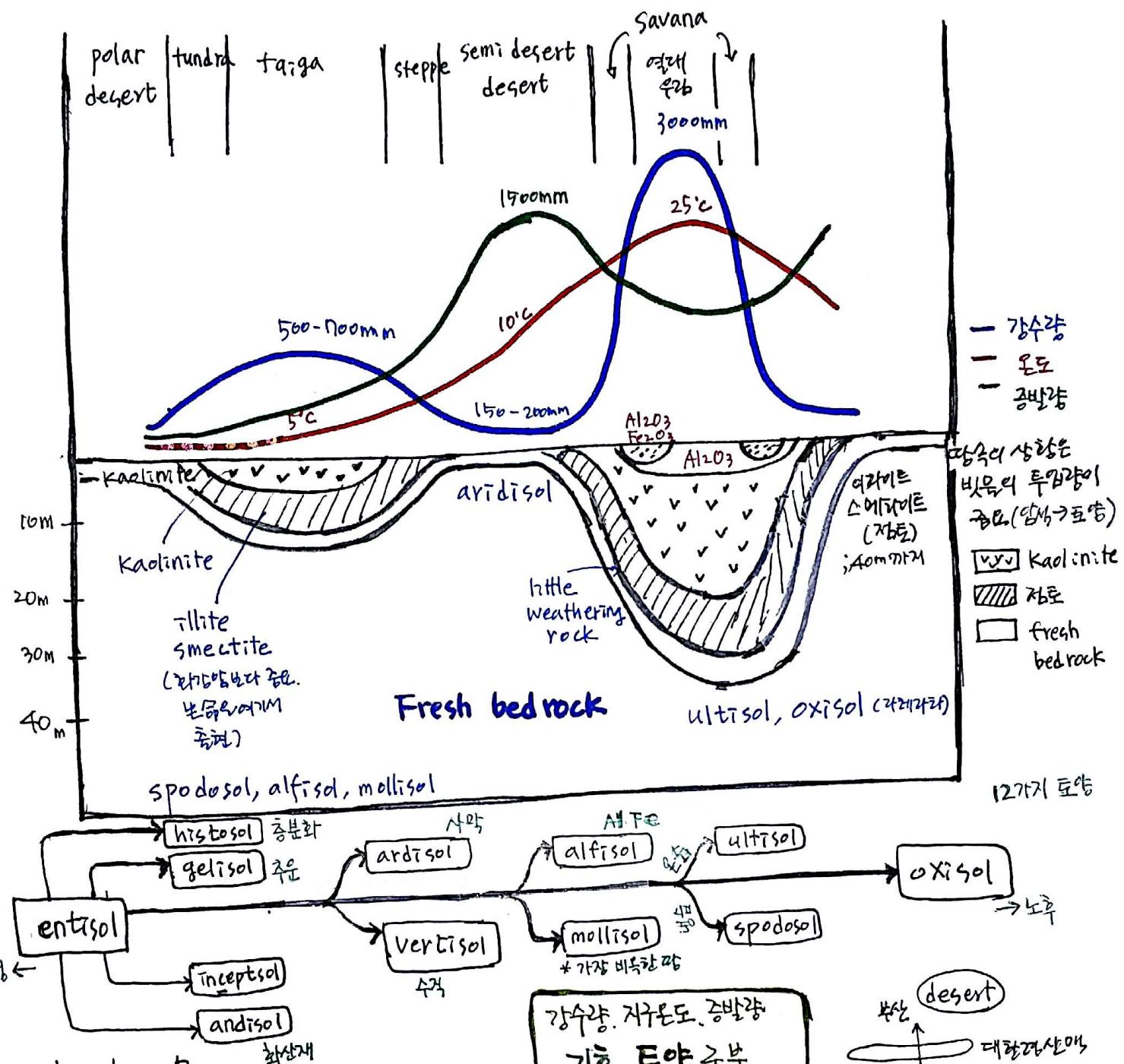


[지각의 구성]



- 암석학을 아끼이 that's all.

- 암기는 '필수'다.



- Steppe: 증발량 > 강수량 250mm 이하  
(semi desert: 강수량 250mm 이하)
- desert: 증발량 > 강수량 100mm 이하
- Savanna: 연대우량 3000mm

- 위도에 따라 식생이 다양하게 바뀌는 원인을 이해할 수 있다.

• 주 퍼스 ~ 맥버른, 6시간을 버스로 이동하면서 위도에 따른 수목, 동식물의 변화를 찾아보고자 했다.

- e.g) 오트산 산세은 고지에 위치한 농농사를 거울

→ 농농사의 북방한계선을 막주까지 올린 것 '길' 한쪽만의 글자

## 광석의

최저 풍화 : 광석이 유용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정도

$\text{Au}(\text{g})$  채굴자가 1ton 당 8g 이상 되면 채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함 (0.0008%)

텅스텐(W) 1%

Fe 30% 부터 가능  $\rightarrow$  50%, 이상되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말함

Al 35%,  $\rightarrow$  지각에 'Fe' 함량이 얼마나 많을지를 대변한다.

(e.g. M<sub>2</sub>SiO<sub>5</sub> 깊기 2m Fe 함량 7%).

$\rightarrow$  불규칙 대류)

### • Kaolinite (22% T<sub>2</sub>)

'Kao'

-유래: 중국 점토산지 장수성 경덕진 고령 (Kaoling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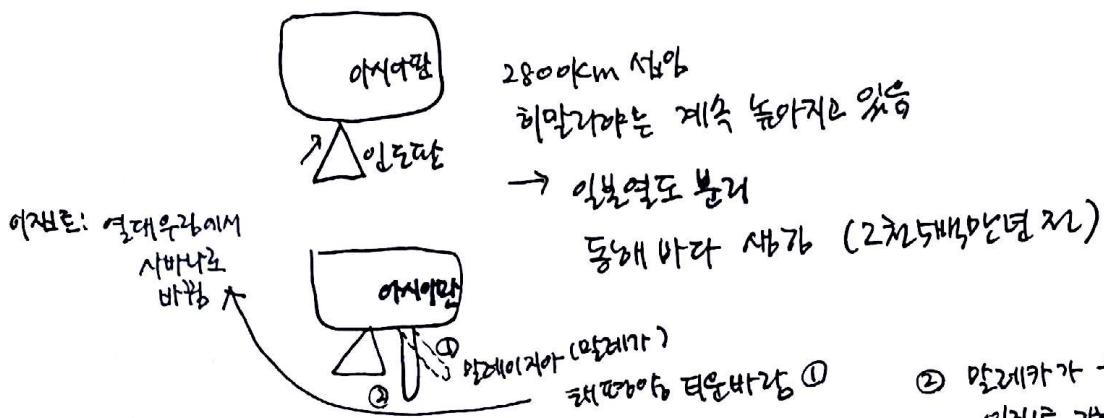
• 뉴질랜드 강변 -  $\text{SiO}_2$  (모래) 아님  
화강암 지대에서 모래가 있다.  
뉴질랜드는 화강암 X  $\rightarrow$  모래 X

• 화강편마암  
(화강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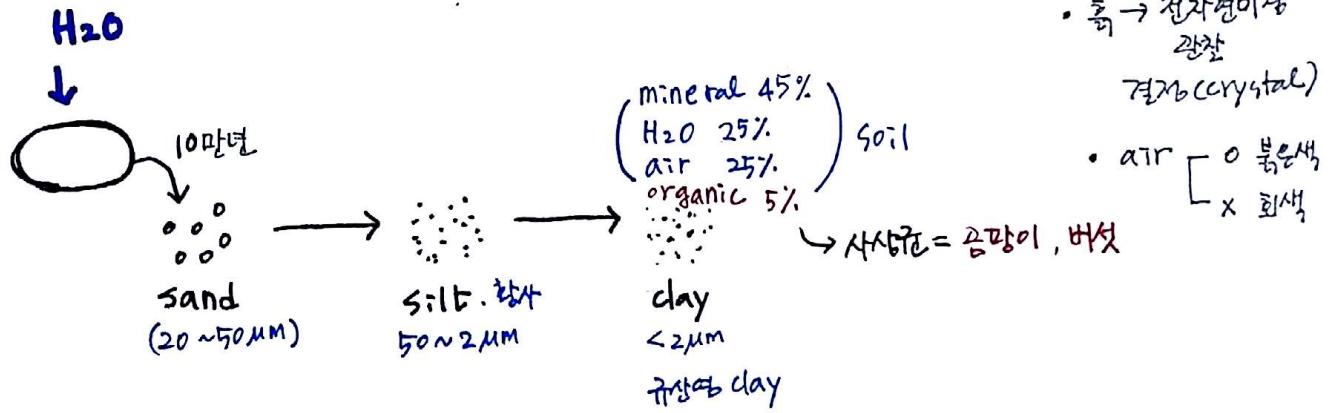
우리나라 70%를 차지하는 화강암은  
(10억년) 미카엘리아 시대의 암석이 부서져  
생긴 것이다.

- 1mm  $\text{SiO}_2$  풍화에 걸리는 시간 - 3,400만년
- 우리나라 토양은 최소한 10억년 이상 된 것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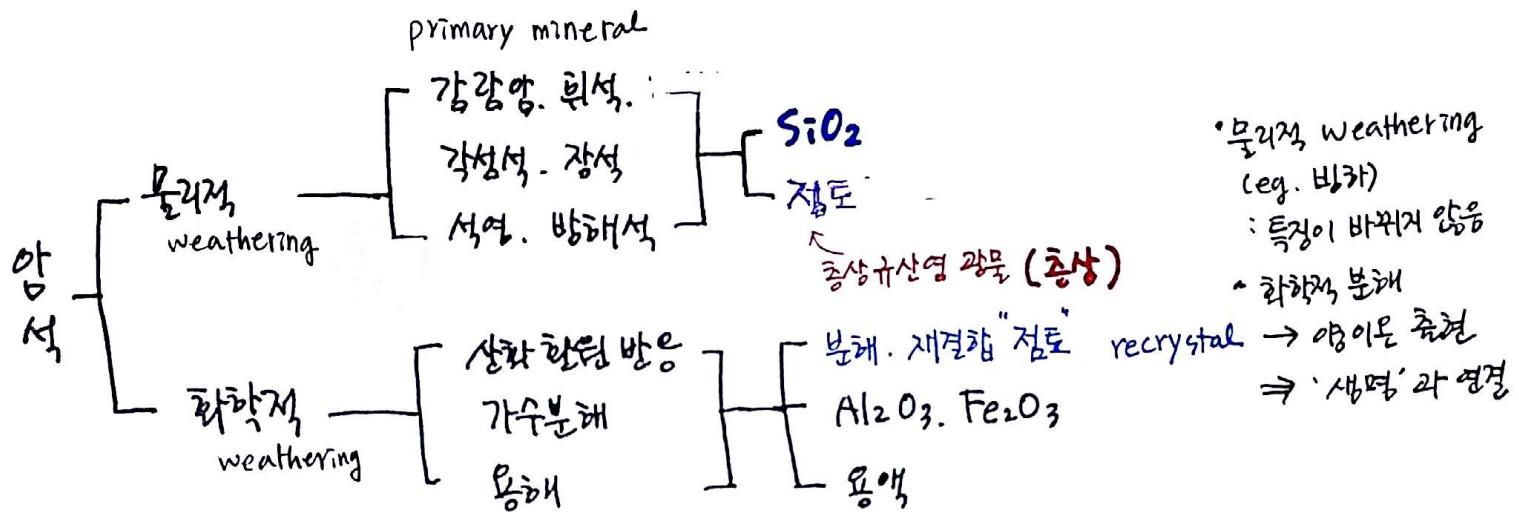
- Savana : 열대우림과 가.우로 나뉘는
- 2km마다 층돌  $\rightarrow$  지진



(∴) 지질학적 대류이동을 양제해서 생기어야 한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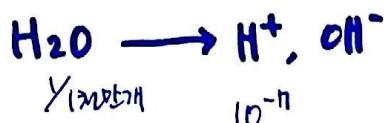
- 흙 → 전자결정  
전자  
결정 (crystal)
- air [ O 블록색  
X 회색 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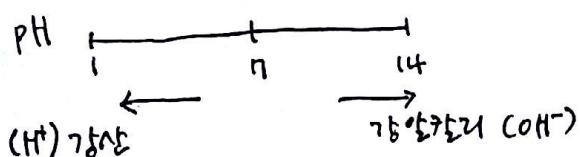
용액	산성 양이온 $H^+$ , $Al^{3+}$ , $Fe^{2+}$
	비산성 양이온 $K^+$ , $Na^+$ , $Ca^{2+}$ , $Mg^{2+}$
	음성 이온 $CO_3^{2-}$ , $HCO_3^-$

$$pH = -\log [H^+]$$

• 중립수  $25^\circ C$  (기압), 1000개 중 1개가 불해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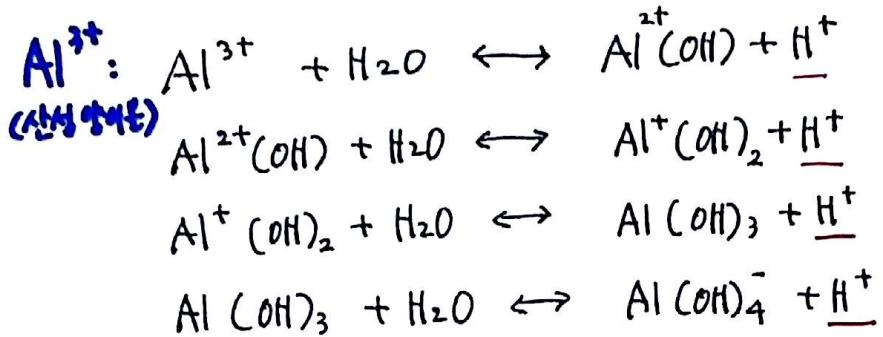
$$pH = -\log [10^{-7}] = 7 \quad (\therefore pH=7 \text{ 중성의 } \frac{1}{2})$$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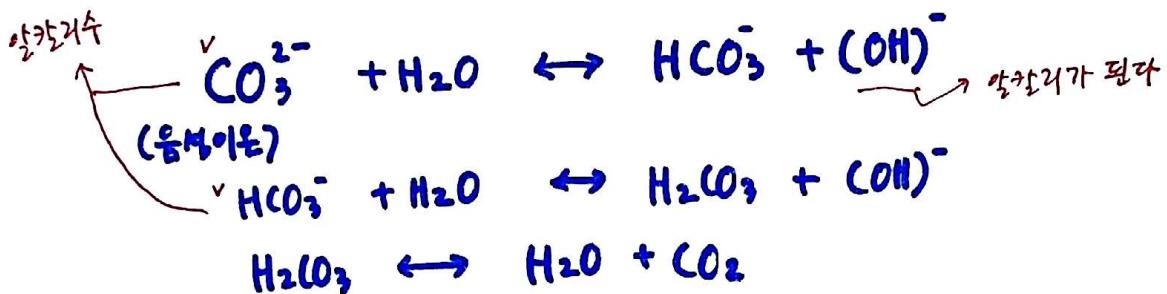
• 질산  $HNO_3$   
화산  $H_2SO_4$   
황산  $H_2CO_3$  )  $\rightarrow H^+$  를 내놓을 수 있음

• 물  $H_2O$   
천만개 중에 1개가 불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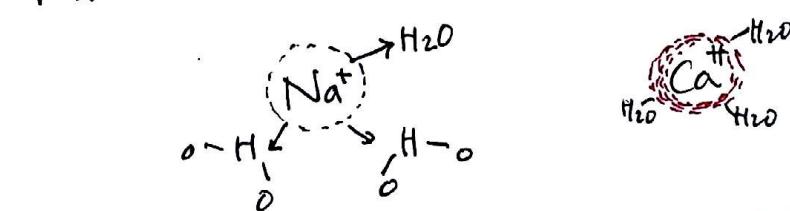
$\text{Al}^{3+}$  자체가 산성의 이유  
반응하여  $\text{H}^+$ 를 만들어 준다.



☞  $\text{Al}^{3+}$ 는 식물에 매우 독이다.  $\underline{\text{H}^+}$  산성을 만들기 때문이다.  
식물 뿌리에  $\text{Al}^{3+}$ 를 차단하는 시스템이 존재한다



- 화강암: 산성암 — 옥각세의 음 (산성)  
세력암:  $\text{Ca}(\text{OH})_2$  → 계곡. 세력암지대 지나 음 (알칼리수)
- 생습
  - $\text{Al}^{3+}$ : 생명의 천적 ( $\rightarrow$  원수)
  - $\text{K}^+, \text{Na}^+$ : 생명의 killer. 토양에 오름을 뿌리면 농사를 할 수 없다  $\rightarrow$  생명죽임  
 $\text{Na}^+ + \text{H}_2\text{O}$  를 동반하여 ; 생명 내부로 침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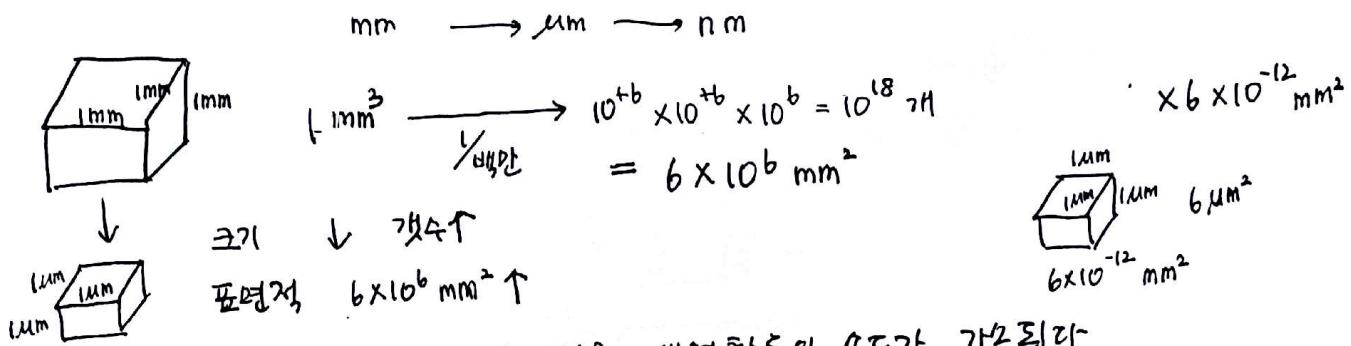
$\text{H}_2\text{O}$  대기는 물이 있다  
흙을 흡착시킨다, 풍진다.

泥土(흙)을 분산시킨다

$\text{Na}^+$ 의 분산작용

약간 화학, 길은 세의 망이 됨  $\Rightarrow$  물이 통과할 수 없는 흙이 된다.

$\text{H}_2\text{O}$  대기는 물이 있다  
흙을 흡착시킨다, 풍진다.  
 $\Rightarrow$  물통과 물이 해지  
 $\Rightarrow$  '농사' 잘된다



- 차기  $\downarrow$ 에서 표면적이 넓어질수록 생명활동의 속도가 가속된다.
- 죄아들의 대외부피당 에너지 대비 생명의 대외부피당 에너지 100배

생명은  $\checkmark$  <sup>가속도</sup>  $\checkmark$  에너지 상대

생명은 membrane이다. 표면적을 넓히는 것이 관건이다.

- 암석은 변하기 어렵다.

이 크기를  $\checkmark$  배만 크기로 줄이면 표면적이 확장으로 넓어지면서 '이온'이 노출되어 생명현상과 연결되어 진다.

$\Rightarrow$  생명은 가속된 전자교환 in "clay" not 암석  
총상규산염

- 총상을 분리시키는 악당  $Na^+$

토양의 < " " 증성으로 만드는 수호자  $Ca^{2+}$

- 모두 암석의 종착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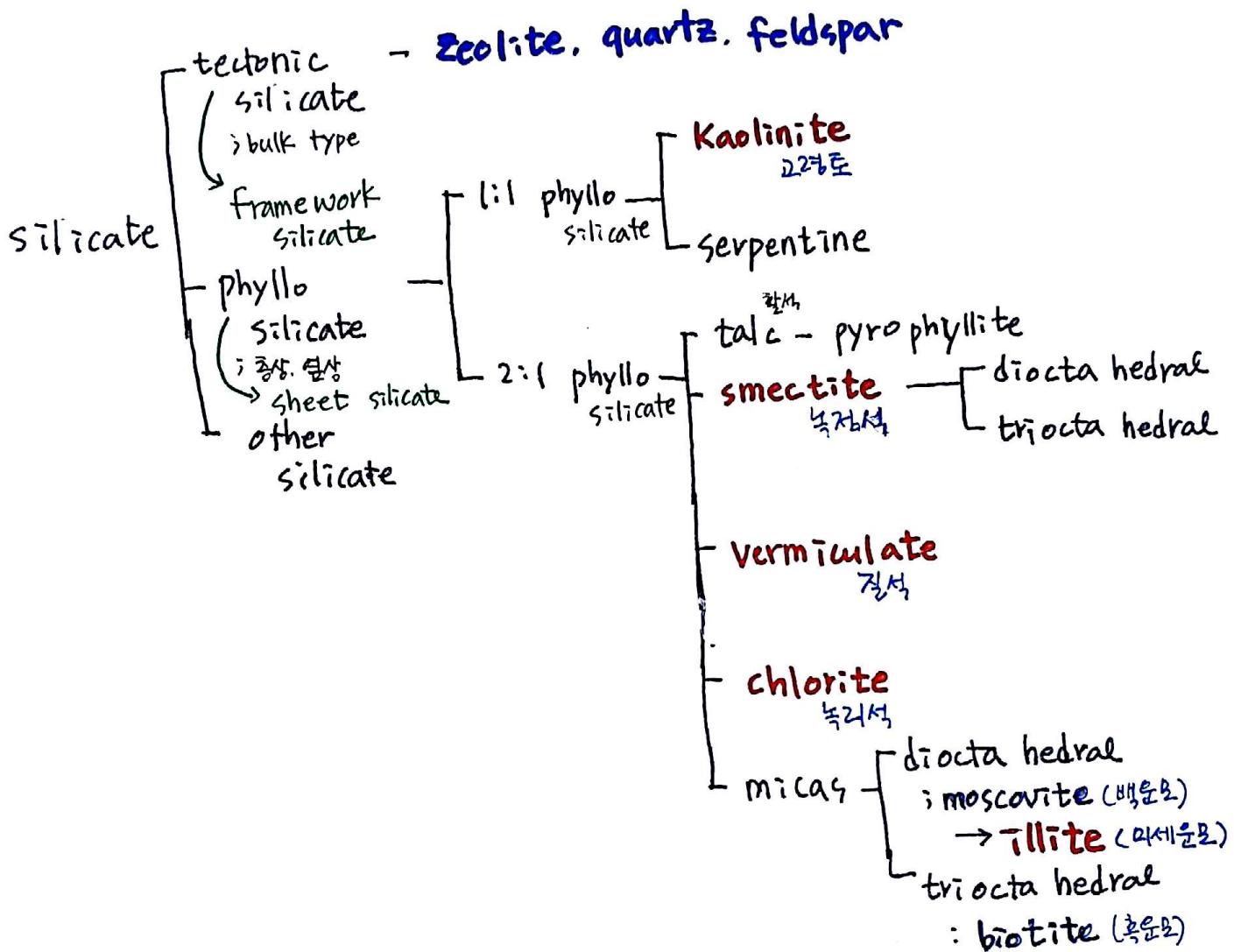
$SiO_2$   
clay : 물리적 변화를 통해 생성된 clay.  
용액(산성액이온, 비산성액이온, 중성액이온)

암석의 대표자, 혼재  
개념을 완전히  
바꾸어야 한다

clay = 총상규산염  
"규산염" 같은  
silica  
1500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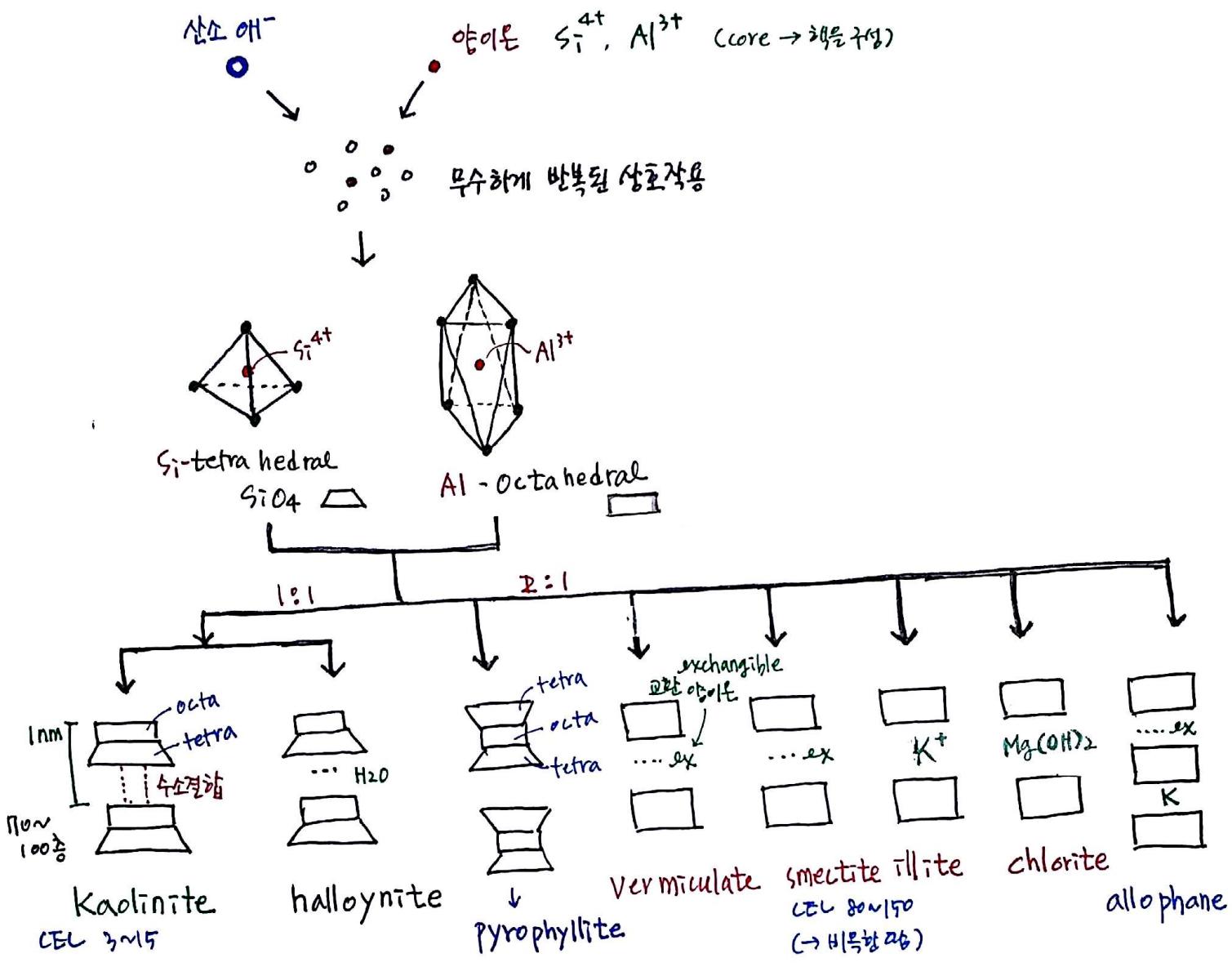
(silicate : 1300개 Mm)  $\rightleftharpoons$  Clay (점토) [총상규산염]  
silica : 2종 한가지  $SiO_2$  bulk 형

# [ Silicate 硅酸 ] 저희는 silicate의 일종류



\* 토양학 : Kaolinite, smectite, vermiculite, chlorite, illite가 중심이 된 학문

- 암석, 토양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'흙 (clay)'이다.  
자연에 맑게, 현실에 맑게 인지 공간에서 제자리를 잡게 하는 것이  
박자세 자연과학 운동이다.
- 일반용어 '흙'은 왈지히 대족된 애매한 개념이므로,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.
- "Clay" : 결정구조를 보면 왈지 crystalize 된 형태, '유리가시'이다.  
부드럽고 무정형 일 것이라는 평ception을 깨야한다.



• 흙 : 형태도 다양하고 무작위로 보이므로 질문이 많았다.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다.

⇒ '현미경 사진'을 보라! '단일시스템' 으로 하나밖에 없다.

phyllosilicate 층상 규산염 정도!

모든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곳 '토양(흙)'이다.

입암(덩어리)으로 만들어진 흙이 식물에 가장 좋은 흙이다. 이 5mm 정도의 흙 덩어리를

만들어 주는 것은 바로 '사상관, 곰팡이 군사'이다

생명의 뿐  
생명의 덩어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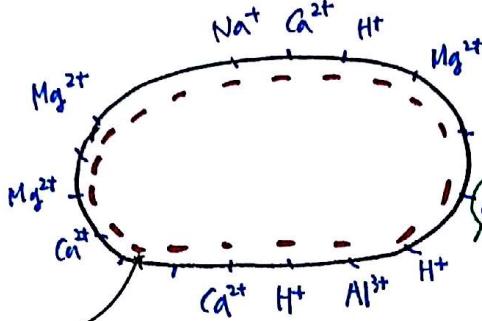
= 곰팡이, 버섯 (버섯은 '선'이다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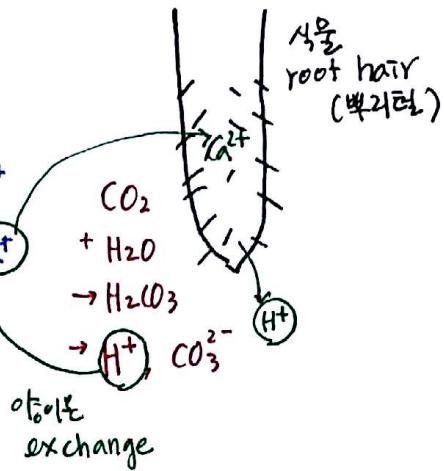
1ha의 사상관 군사를 모두 모으면 '4ton'

양이온 (000 개)

흙의 표면에  
결합하고 있다.



흙 내부는 음이온  
(∴) 광학에 양이온이 결합



식물세포에 필요로 하는 양이온들을 흙 표면에 띄고 있다  
→ 식물세포 속 유래한  $H^+$  ion과 exchange  
→ 식물에게 필요한 양이온을 공급한다.

### ① "CEC" cation exchange capacity 양이온 교환 능력

CEC 가장 높은 것은 '퇴비'이다 (유기물이 많음)

- 우리나라 기반암은 화강암, 화강편마암 70%이다

→ 분해되었던 모래 ( $SiO_2$ ), 물이 잘 통하므로 → 녹아있던 i온들이 쉽게 쓰여나간다.

→ 뿐만 아니라 나온 암석 자체는 산성이다

(∴) 우리나라의 토양은 '산성'이다. 따라서 유기물이 쉽게 분해된다

- ① 소나무 ② 진달래(동산) 이 많다  
액기상산성 강산성에서 잘 자란다.

↓  
암석자가 쉽게 빠져 나가므로  
↓

### ② 바위가 점토가 된다 = 화학적 양이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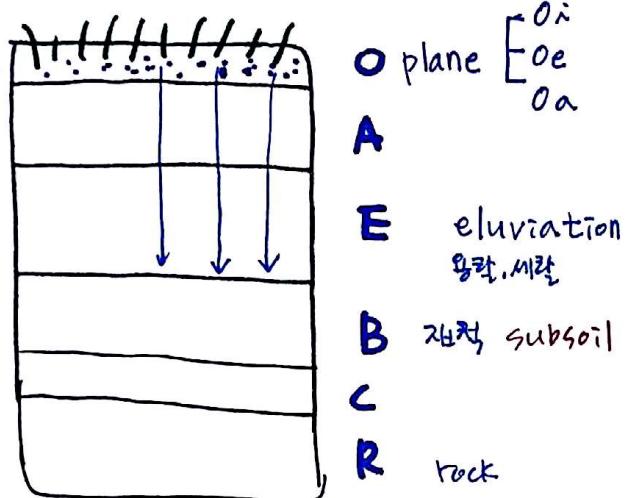
(표면에) 양이온을 많이 불기하려면 표면을 넓어야 한다

~ 새끼는 채양해라 에너지 필요가 높다.

단위 표면적 당

(∴) 고고학 유물 발견 어렵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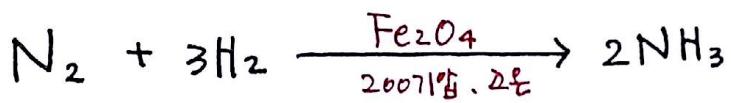
## [토양의 층]



- organic horizon (유기물층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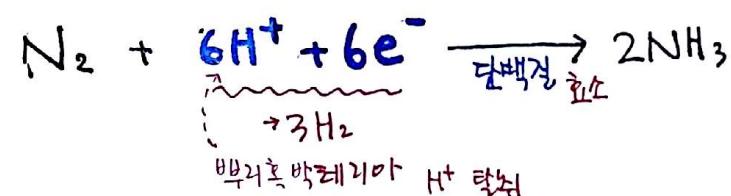
## [생명현상과 연결시켜 보자]

- 철레 구마노세 : 철레로드  
→ 비료원, 화약원료 사용  
불간서식 해상 볼트대  
→ 비료, 화학원료 개발 노력  
철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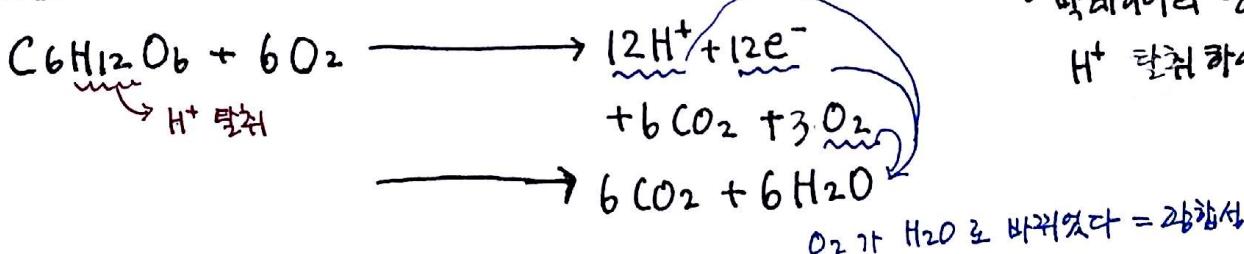
Haber 法 (독일인)

; 인류 생존율을 극적으로 높힌 계기가 됨



- 생물학적 질소합성과정은 (bacteria)  
저온 578K로 표면적이 커져 이온 '상태가 노출된 이온을 이용함'

(호흡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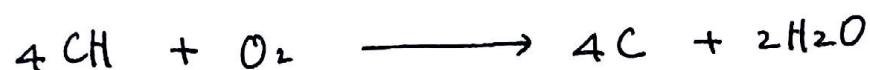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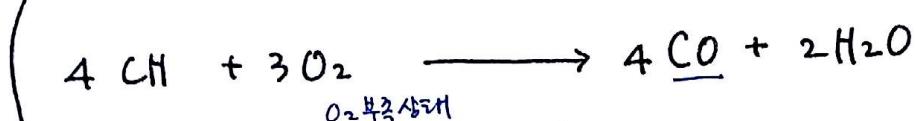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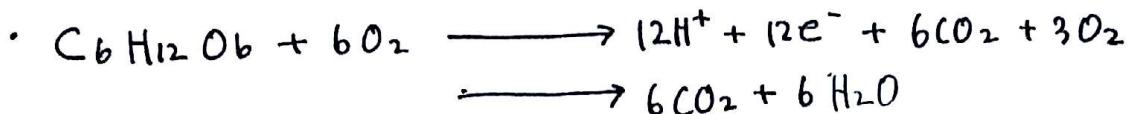
- 박테리아의 단백질(호흡)이  $H^+$  탈취하여  $NH_3$  합성

- $O_2$  와의 결합 속도 차이일 뿐이며, 모두 동일한 현상이다.

- 가장 빠르게  $O_2$ 와 결합하는 - 폭발 (usec). 폭약이 살고와  $\frac{1}{10}$ 초간 결합하여 충격파 때문에 주변 초호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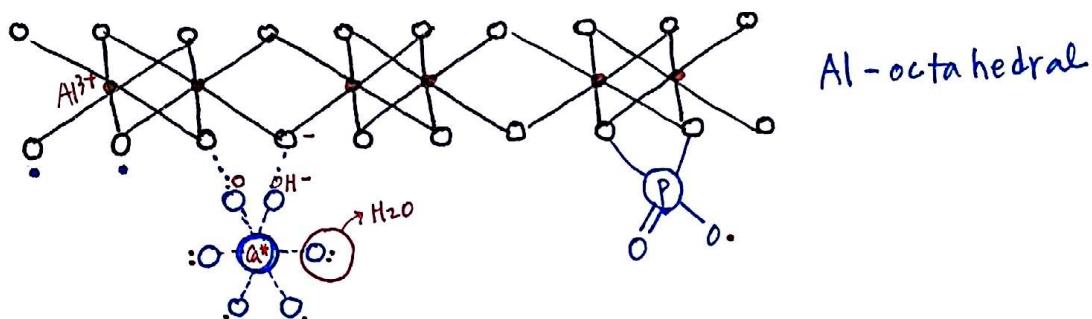
천체에서 $O_2$	"	"	- 연소 (수분 ~ 수 시간)
터	"	"	- 오락 ( $\sim$ 수 시간>)
여	"	"	- 노학 (수년)

연소학: O<sub>2</sub> 결합의 다양한 과정



$\langle \text{Hb}-\text{O}$   
 $\text{Hb}-\text{CO}$  200x  
 혈액과 브레인의 CO 침투도가  
 약 200 ppm  
 → 저속

[ 층상구조 phyllo silicate ]



$\text{Ca}^{2+}$ 는  $\text{O}^2-$  ( $\text{H}_2\text{O}$ 가 둘러싼)의 공유결합을 강하게 당길 수 있다.  
 but  $\text{Na}^+$ 은 끊기는 힘이 적어서  $\text{H}_2\text{O}$ 가 멀리 배제하기 되어,  
 층상구조를 떨어지게 한다  $\longrightarrow$  흙이지는 토양

**CEC** cation exchange capacity

c mol/kg  
0.01

• 유기나무 흙은 CEC 10 ~ 15

• 꼭식이 가장 잘자라는 토양  
 $\rightarrow$  토양이 따라 조정해야 함

( 무기질 토양 pH 6.5  
유기질 토양 pH 5.5 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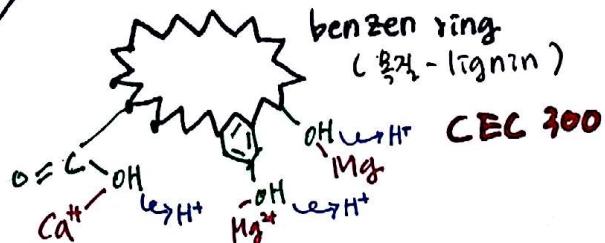
soil의 organic 부분  
퇴비

humus 토식 (유기질 사분체)

100m  
1.5m  
Clay 표면적  
↓  
미각 저체의 표면적이다  
"공간의 확장" 하니 'ion'을 끄낼수 있다.

부식토: 평평을 때 표면적

900 m<sup>2</sup>/g



## [summary]

- 암석용어 및 인수분해 암기할 것

$\xrightarrow[\text{인수분해}]{\text{비료에 따른 결집구조 악화(기)}}$  → 전기적 중화를 시키고자  $\text{H}^+$   
암석은 ' $-$ ' ( $\text{SO}_4^{2-}$ )<sup>4</sup>

( $\therefore$ ) 산성/비산성 암이온이 필요하다

-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는 흐름이 필요하고,

그 결과  $\text{H}^+$  가 생긴다  $\rightarrow$  흐름이  $\text{H}^+$ 를 회수한다 → 흐름이  $\text{H}^+$  이면  
다른 암이온을 방출한다  
 $\text{Al}^{3+}, \text{Fe}^{2+}, \text{K}^+, \text{Na}^+$   
 $\text{Ca}^{2+}, \text{Mg}^{2+}$

(방작용)

- 화학비료는 사용하면 상성화시켜 '휴경' 해야 한다.

· 산성토양에 '석회 (악질리)' 비료를 뿌리면 꽁꽁凍되어 다시 결착이 가능하다.  
 $\text{Ca}^{2+}$  우기 흐름은 물과세분으로 물이 잘 빠지므로 흐름 속에 생긴 '암이온'이 쉽게  
빠져나가고, 암석 자체가 산성인 '산성' 흐름이다.

- Clay 개념이 중요하다.

암석 둉어리는 커서 '변화' 되기 어려다

$\rightarrow$  물리적 풍화를 거쳐 입자크기가 줄어들면 표면적이 증가하고,

'Ion'이 노출되어 가속된 전자전달 ( $\div$  생명시스템)과 물장  
연결될 수 있다.